

##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국민 홍보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0월 3일 한국경제TV '경제 25시'코너에서 협회 및 기계설비에 대해 홍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10월 3일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30분간 방영된 한국경제TV '경제25시'코너에서 협회 소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인 기계설비를 널리 알렸다. '경제 25시'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연혁, 주요 업무,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전국 시·도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시공품질점검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추방 노력을 적극 홍보했다. 정해돈 회장은 '경제 25시'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당면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가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계설비는 건설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기계설비인 모두 희망을 갖고, 협회를 중심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우리 모두가 기계설비를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인사말 서두에 '기계설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란 멘트를 쓰고 있다"고 밝히면서 회원사들에게 기계설비를 더욱 사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경제 25시'에 방영된 내용을 DVD로 제작하여 회원사 및 관계기관, 학교, 관련단체 등에 배포했다. ●

# 플랜트협의회 간사 추천 등 협의



▲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송기영)는 지난 10월 13일 설비건설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플랜트협의회 간사 추천의 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송기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플랜트공사 기성실적액은 약 4조원으로 설비공사 전체 실적 대비 28%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등 위상이 높다”

면서 “해외건설뿐 아니라 국내 건설경기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건설기술 산업의 침병으로서 플랜트 기술능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플랜트 기성실적 및 운영비
- 플랜트 관련 규정 개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플랜트엔지니어링학과 개설 및 MOU 체결

## 남한산성 둘레길 걸으며 회원사 간 결속 다져



▲ 서울특별시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남한산성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남한산성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회원사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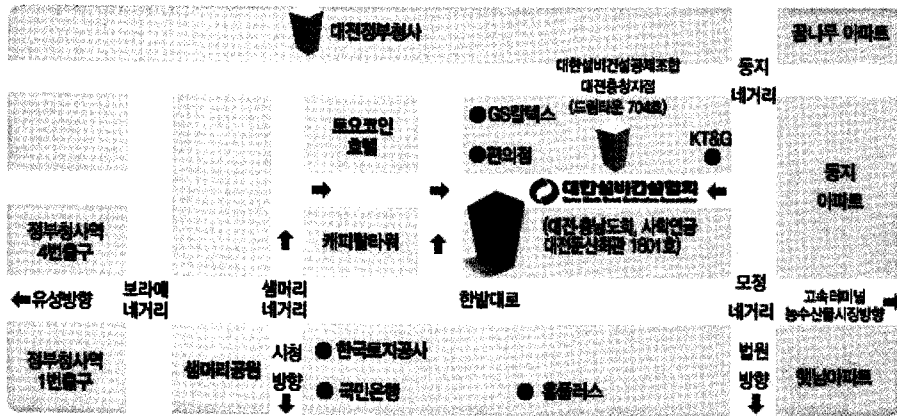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회 회원사들의 체력단련과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등산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남한산성 둘레길(남한산성 동·서·남·북분을 걷는 2시간 코스)을 걸으며 결속을 다졌다.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확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물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회원사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이상일 회장은 또 “회사경영에 매진하느라 여념이 없을 텐데도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등산대회를 통해서 서로 정담을 나누고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도 교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업무 편의 위해 사무처 이전



대전·충남도회(회장 황광연)는 지난 10월 15일 협회 사무처를 유성구 탑립동에서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드림타운에 위치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전·충청지점과 거리가 가까워져, 회원사들이 협회와 조합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전·충남도회 사무처 이전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서 회원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협회 및 조합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소	(305-510)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925번지 2층	(302-828)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9 사학연금대전 둔산회관 1801호
전화	042) 932-3900~2	
팩스	042) 932-3903	
이전일자	10월 15일	

## 우수한 성적과 타의 모범을 보인 염수용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 강원도회는 지난 10월 12일 염수용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사진 왼쪽부터 장효성 회장, 염수용 학생, 염성도 사장)

강원도회(회장 장효성)는 지난 10월 12일 강원도회 사무처에서 2011년도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자로 선정된 염수용 학생 [반곡중 2학년, 염성도 (주)그랜드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효성 회장은 염수용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앞으로도 사회봉사와 교내봉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도의실천에 모범을 보

이고 학업에도 매진하여 지역과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회는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대비하여 인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실시되는 회원사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사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 강원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강구



▲ 장효성 회장(오른쪽 두 번째)은 '2011 강원ECO 홈페이지 강원건설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원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회 장효성 회장은 지난 10월 27일 춘천 베어스관광호텔 소양홀에서 열린 '2011 강원ECO 홈페이지 강원건설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최형선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김성락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부회장, 김시남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부회장, 조병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 회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등과 함께 강원도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효성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원도 내 아파트 공사 및 각종 대형 골프장 공사 등은 강원도 업체가 아닌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으면서 자사의 협력업체들을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인·허가 시 강원도 내 전문건

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효성 회장은 또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재를 관급으로 하여 입찰공사 예정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설계하는 등 지자체에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보다 더 확대해 강원도 내 건설업체 참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강원일보사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도 내 건축 관련 공무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연구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건설건축 활성화 방안 및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을 논의했다.○

## 전북도회 회원사들의 친목과 화합 축제 한마당



▲ 전북도회는 지난 10월 18일 전북 상떼힐 익산CC에서 '제4회 전라북도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도회는 지난 10월 18일 전북 상떼힐 익산CC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회원사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 행사는 본회 정해돈 회장을 대신하여 임재홍 상임부회장이 참석했고 광주·전남도회 이연풍회장 및 강신모 전임 회장, 이기준 본회 이사, 대한설비공제조합 김명국 이사장을 비롯한 50여 전북도회 회원사가 참여해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이영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전북도회 회원사의 단합과 친목도모에 크게 기여한 이 골프대회는 앞으로 골프한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레저스포츠를 접목한 체육대회로 발전시켜, 더 많은 회원사

가 참여함으로써 유대강화와 함께 회원사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 정해돈 회장은 임재홍 상임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전북도회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영길 회장과 전북도회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더욱 발전돼 전북 회원사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서 1위는 71타를 기록한 오유섭(유)하나종합기술 대표가, 2위는 73타를 기록한 유기정(유)상아이엔지 대표, 룡기스트에는 황겸호(유)백두개발 대표, 니어리스트는 육종철(유)대륙엔지니어링 대표가 차지했다.◎

신명교 공인노무사, 노무자문 위촉

## 회원사 인사 · 노무 관리 만전



▲ 전북도회는 지난 9월 26일 신명교 노무사를 노무자문으로 위촉했다. (왼쪽부터 김승원 운영위원(유)동양공사 대표, 정하형 부회장(주)도원테크 대표, 이영길 회장, 신명교 노무사, 황경호 운영위원(유)백두개발 대표)

전북도회(회장 이영길)는 회원사의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 협회 사무처에서 이영길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명교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이현 대표)를 노무자문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전북도회 회원사의 노무·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업무교육 등을 담당하게 될 신명교 공인노무사는 전북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노동부 전주지청 최저임금 감독,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고용구조개선 노무사 등 노무·인사관리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 전문가이다.◎



신명교 노무사

• **업무경력**

- 現 노무법인 理賢 대표노무사
- 現 전북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現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 現 노동부 전주지청 최저임금 감독
- 現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네이버 지식n, 네이트 지식 인사노무담당 노무사
- 現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고용구조개선 노무사
- 現 전라북도 전주3공단 근로자상담 노무사

• **자문경력:**

JTV전주방송,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의과대병원, 전주삼성병원, 전주기계연구소기술원, 베테랑분식, 아시아엔테크, 전북은행, 한미식품 외 다수

TEL : (063)246-9366 M.P:010-6690-4798



## 인재양성과 전북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 다져



▲ 전북도회 이영길 회장(왼쪽 세 번째)은 지난 10월 20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오른쪽 네 번째)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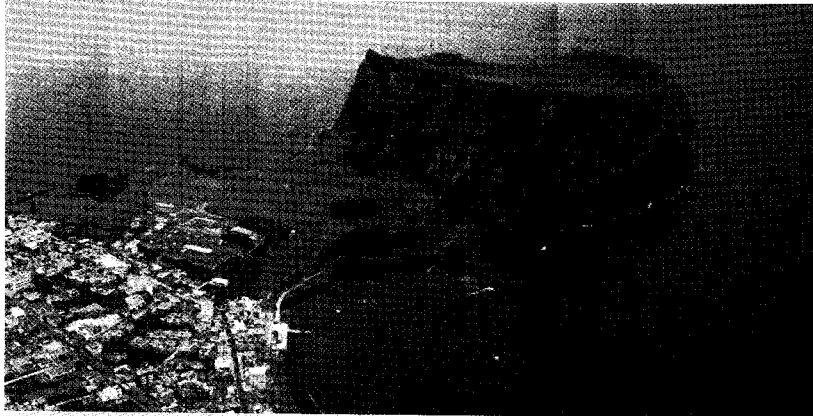
전북도회(회장 이영길)는 지난 10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전북사랑의장학금고재단'에 기탁돼 전라북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영길 회장은 "21세기 지역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재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가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어려운 건설 경기에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이영길 회장을 비롯한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장학금은 전라북도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라북도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회는 지난 2004년부터 불우학생 장학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장영홍 회장,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건설분야 분과위원 활동 펼쳐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회장(사진 오른쪽)은 제주도 선정을 위해 전국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은 제주 성산 일출봉)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영홍 회장은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해외 관광객 증가로 관광 및 부대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비건설인 모두가 투표 참여 및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제주도는 28개 후보지역 중 인간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유일지역이며 세계 최초로 자연환경분야에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바 있어 선정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각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 속에 전화와 인터넷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완료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11월 11일 세계 7대 자연경관이 선정된다.

투표 방법은 표와 같다.

기타 자세한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064-710-3951)와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064-755-9828)로 문의 바란다.☎

### 전화 투표

- ① 001-1500-7715
- ② 전화 연결 후 60초간 영어 안내가 끝나고 "삐~ 소리가 나면 7715(제주코드) 입력
- ③ 감사 멘트(Thank you)후 종료

### 인터넷 투표

- ① www.N7W.com 클릭
- ② 투표배너 클릭
- ③ 제주도 등 7곳 선택 후 →오른쪽 하단 'Continue to Step 2' 클릭
- ④ 회원가입 후, 하단의 'Register' 클릭
- ⑤ 회원가입시 가입한 메일함에 메일 수신 확인
- ⑥ Successfully 단어가 보이면 투표 완료